

광주박물관, 지역 첫 인도학 강좌

3월 22일~6월 14일 박물관대학 고대 문명사·카스트의 세계 등 12회 강연... 수강생 220명 모집

인도는 4대 문명 중 하나인 인더스 강을 거느린 국가다. 불교가 발생했으며 18세기부터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 세습적 계급 제도인 카스트가 존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인도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일 뿐이다. 오늘날 인도는 전통과 종교의 나라를 뛰어넘어 세계 질서 속에 경제와 정치적 힘을 지닌 거대한 존재로 부상했다. 많은 이들에게 예술적 문화적 영감을 선사하기도 한다.

인도를 모티브로 한 박물관대학이 개설돼 눈길을 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애경)은 인문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성을 일깨우는 제33기 광주박물관대학을 개설해 눈길을 끈다. 강좌는 오는 3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오후 2시) 박물관 대강당에서 총 12회 진행된다.

이번 강의는 (사)국립광주박물관회(회장 이병희)와 함께 개설했으며 지역 최초 진행되는



이춘호 교수 강희정 교수

인도학 강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2일 첫 강좌는 이광수 부산외국어대 인도어과 학과장이 '인도 고대 문명사의 흐름'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29일에는 김용준 고려대 문화유산융합학부 강사가 '인더스의 고대 도시와 고고학'을, 4월 5일에는 강희정 서강대 동남아학 협동과정 교수가 '신들의 세계: 굽타시대와 그 이후의 인도미술'을 강연한다.

김혜원 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장은 '인도의 석굴 사원' (4월 12일)을, 김경화 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는 '인도 카스트의 세계'를

모티브로 이야기를 나눈다.

불교 미술을 모티브로 찬란한 인도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이주형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인도의 불교미술' (4월 26일)을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심재관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힌두교와 사원건축' (5월 3일)을 강의하며 이춘호 한국외국어대 인도연구소 교수는 '무술제국의 이슬람 건축과 미술' (5월 10일)을 이야기한다.

인도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둔 강연도 있다. 5월 17일에는 이옥순 인도문화연구원장이 '인도 바로보기, 오해와 편견을 넘어'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류현정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강사는 '인도 철학의 세계' (5월 24일)를 강의하며 구하원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는 '식민지배와 인도미술' (6월 7일)을 모티브로 강좌를 펼친다.

마지막 시간인 6월 14일에는 상연진 한국의국어대 인도연구소 책임연구교수가 '인도의 독특한 음식문화'를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마감시까지이며 모집인원은 220명. 누리집 선착순 마감, 수강료는 15만원. 문의 062-570-707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회에 간 '발레'

광주시립발레단 오늘 초창 공연 '낭만~고전' 5개 파트 무대에

'국회에서 만나는 발레.'

광주시립발레단이 16일 오후 7시 서울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연을 갖는다.

발레단은 국회 문화극장 초청공연으로 해설이 있는 발레 'Voice of Spring'을 무대에 올린다. '호두까기 인형'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타 지역 발레 애호가들을 만나온 발레단은 올해 첫 초청 공연으로 국회에서 무대를 선보이게 됐다.

박경숙 예술감독이 총연출과 해설을 맡은 이번 무대는 낭만발레에서 고전발레에 이르기까지 다

섯 개의 파트로 구성된 갈라 공연으로 생동하는 봄과 어울리는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발레 '해적' 가운데서는 그리스 소녀 메도라와 그녀를 구출하는 해적 콘라드, 그의 조력자 알리 등 세 명의 주역이 선보이는 '그랑 파드 트루와'를 통해 32회전 등 다양한 테크닉을 선보인다.

또 파사의 할렘에서 세 명의 오페라리스크가 추는 '그랑 라드 트루와'도 눈길을 끈다.

그밖에 아름다운 슬라브 주제와 변주곡을 배경으로 경쾌하고 발랄한 춤이 돋보이는 '코펠리아' 중 '슬라브 바리이션', 아크로바틱한 장면을 만날 수 있는 'Spring water'도 무대에 올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저작권 무료 배움

누리집 교육서비스 통합 '저작권 e-배움터'로 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누리집 3곳에 분산됐던 저작권 교육서비스를 통합해 '저작권 e-배움터' (www.educopyright.or.kr)로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저작권 e-배움터는 국민 누구나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와 평생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저작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다.

저작권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강의부터 학교 현장과 일상생활에 유익한 강의까지 67개의 쉽고 다양한 저작권 교육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화면을 재구성하고 이용자 메뉴를 단순화해 누구나 쉽게 강의를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교육 수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희망 콘텐츠를 수강할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관심 분야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작년까지 일부 유료로 제공하던 콘텐츠도 올해부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영화 '카운트' 진선규

“복싱 선수로 첫 주연 떨려요”



서울올림픽 복싱 금메달리스트 박시현 선수 이야기 모티브 교사 전향 후 좌충우돌 코믹물

1988년 서울올림픽 복싱 라이트미들급 결승전. 한국의 박시현과 미국의 로이 존스 주니어가 금메달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쳤다. 혼신의 힘으로 에션을 뚫고서 결승에 오른 박시현이었지만, 로이 존스 주니어의 주먹은 매서웠고, 경기 내내 박시현은 고전했다.

경기가 끝나고 금메달 주인공이 가려지는 순간, 심판은 로이의 손을 들어 올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다. 박시현은 한국을 종횡 4위로 올려놓는 금메달을 목에 걸지만, 동시에 판정시비에 휩싸이며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 그는 결국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렇게 사라져갔다.

영화 '카운트'는 박시현 선수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은 작품이다. 박시현이 갖은 비난 속에 링에서 내려온 뒤로 지난 20여 년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낙향한 그가 체육교사가 돼 학생들을 가르쳤고 국가대표 감독으로 뛰었던 일이 드문드문 전해졌을 뿐이다.

'카운트'는 판정시비 이후 고향 진해에서 체육교사가 된 '시현 쌤' (진선규 분)을 중심으로 하나둘 링 위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다. 가난과 반쪽짜리 좌절했지만 다시 링 위에서는 윤후(성유빈), '양아치'가 되지 않고자 복싱에 나선 환주(장동주), 시현의 곁을 꿰뚫어 지키는 아내 일선(오나라), 과거 시현을 제자로 뒀던 교장(고창성)이 티격태격하며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이야기다.

작품에서 단연 주목할 만한 배우는 진선규다.

/연합뉴스

영화 '범죄도시'의 조진숙 조폭, '극한직업'의 마약 반 형사, '승리호'의 우주 쓰레기 청소선 기관사, '공조2: 인터내셔널'의 글로벌 범죄조직 리더 등으로 분하며 흥행 대세임을 입증한 그의 새로운 변신을 볼 수 있다.

'카운트'를 통해 첫 주연으로 발돋움한 그는 '시현 쌤'으로 작품 전체를 안정적으로 끌어간다. 고향이 진해인 진선규는 어린 시절 꿈이 '체육 교사', 취미가 '복싱'이라고 밝혀왔을 만큼 실제 인물인 박시현 선수와 닮아있다.

언론사사회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진선규는 많은 플래시를 받았다. 그는 첫 주연작에 대한 부담과 떨릴 때면인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단독 주연, 전체 서사를 끌고 가는 주연을 맡아서 지금도 엄청나게 떨립니다. 오늘 아침에 시현 선생님(박시현 선수)에게 떨린다고 했더니 문자를 주셨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진선규가 링 위에 오르는데 그렇게 떨고 있으면 옆이 더 떨리지 않겠느냐. 힘내세요'라고요. 뭉클하기도 했고, 갑자기 부담되는데...(글썽)"

복싱을 전면에 내세운 '카운트'에는 링 위에서 벌어지는 타격 장면이 많다. 글러브가 상대방의 얼굴과 복부에 연달아 꽂히며 '퍽퍽' 터지는 소리는 일종의 쾌감을 선사한다. 링 위의 타격 장면은 배우들의 고된 훈련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복싱을 가르치는 체육 교사 진선규는 물론 고교생 복서 역을 맡은 성유빈, 장동주는 촬영을 시작하기 두 달 반 전부터 주 3회 이상, 하루 4~5시간을 권투 훈련에 집중했다.

연출을 맡은 권혁재 감독은 "어려운 시기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영화를) 열심히, 즐겁게 찍은 배우들만큼이나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